

## UAE, 요르단 내 광물 운송 철도 건설에 23억 달러 투자

- 2024년 9월 5일, UAE 투자부와 요르단 투자부는 철도 부문 협력 강화를 위한 투자 각서에 서명하고, 동 협력의 일환으로 23억 달러 규모의 광물 운송 철도 건설 프로젝트 관련 계약을 체결함.<sup>1)</sup>
  - UAE 에티하드 레일(Etihad Rail)은 아카바(Aqaba) 항구와 광산 지역인 알시디아(Al-Shidiya), 고르 옛사피(Ghor es-Safi)를 연결하는 360km의 철도 네트워크를 건설하고자 함.<sup>2)</sup>
    - 에티하드 레일은 요르단인산염광산회사(Jordan Phosphate Mines Company) 및 아랍칼륨회사(Arab Potash Company)와 MOU를 체결하여 완공된 철도를 통해 매년 1,600만 톤의 인산염과 칼륨을 아카바 항구로 운송할 예정임.
    - 2024~25년에는 철도 노선과 광물 취급 요건에 관한 연구를 완료하고 2026년에는 건설 공사 입찰을 진행할 계획으로, 적어도 2030년에는 철도 프로젝트가 가동될 것으로 보임.
  - 이번 투자는 2023년에 11월 양국이 서명한 55억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패키지의 일부에 해당함.
    - 양국은 요르단에 투자 기금을 설립해 광물 운송 철도뿐만 아니라 하수 처리·폐자원 에너지화 플랜트 건설, 아카바 항구에 새로운 다목적 터미널 건설, 항만 커뮤니티 시스템 도입 등의 인프라 및 개발 프로젝트 투자에 합의함.<sup>3)</sup>
- 아카바 항구 개발과 인산염·칼륨 채굴은 요르단의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인 경제 현대화 비전(Economic Modernization Vision)'에 포함된 주요 분야임.
  - 아카바 항구는 홍해와 접해있어 중동·아프리카·유럽을 연결할 수 있는 해상 물류 중심지로, 요르단 정부는 2023-25년간 약 31.9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아카바 항구의 인프라 개발 및 운영을 추진하고자 함.<sup>4)</sup>
    - 물류 관련 시설 개발뿐만 아니라 그린 암모니아·수소 플랜트, 산업 국제단지, 디지털 단지

1) United Arab Emirates Ministry of Investment(2024. 9. 4), "UAE and Jordan Sign Investment Memorandum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the Railway Sector",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4. 9.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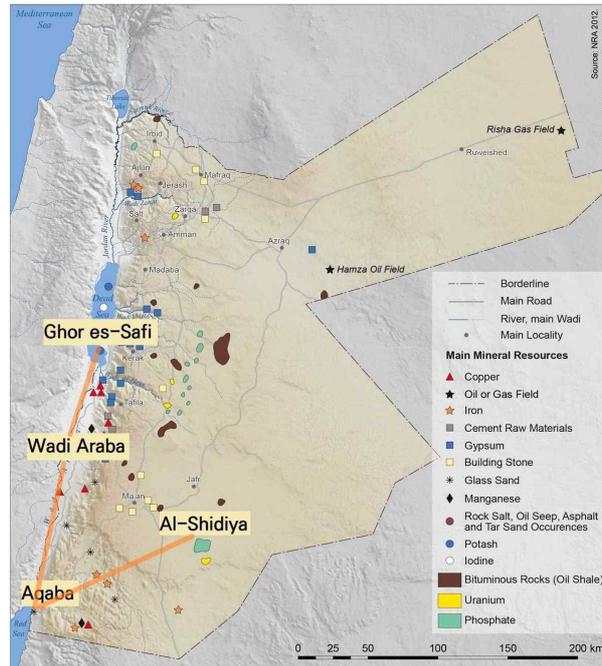
2) 에티하드 레일은 UAE 국영철도네트워크(National Railway Network)의 개발 및 운영 주체; 알시디아(또는 에시디아, Eshidiya) 광산은 요르단에서 생산량이 가장 큰 인산염 광산; 고르 옛사피에는 아랍칼륨회사의 주요 플랜트 단지가 위치.

3) "Jordan-UAE MoUs uncover \$5.5 billion investment opportunities"(2023. 11. 3), The Jordan Times,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4. 9. 23).

4) 다목적 항구 운영, 킹 후세인 국제 공항 운영, 국가 철도망 프로젝트(아카바-암만), 아카바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 및 리노베이션 등; Jordan Ministry of Planning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2023), p. 32.

- 등 다양한 시설들을 설립해 항구와 인근 지역을 개발할 계획임.)<sup>5)</sup>
- 전 세계 인산염 매장량 5위(37억 톤), 칼륨 매장량 12위(180만 톤)인 요르단은 비료 생산에 필수적인 두 광물의 채굴 수익성이 세계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수요 상승으로 향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관련 기업 설립 및 투자 유치를 추진 중임.)<sup>6)</sup>
- 또한 2021-33년간 새로운 광산 탐사와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통해 인산염·칼륨 관련 수입을 3배 증가시킬 계획이며, 이를 위해 철도와 항만 등의 연계 물류망을 개선하겠다고 밝힘.)<sup>7)</sup>

그림 1. 요르단의 광물 분포 및 광물 운송 철도 예상 노선



자료: Ababsa(2013), pp. 60-63을 저자가 편집.

- UAE는 지역 안정과 자국 산업 다각화 등을 목적으로 요르단에 보조금, 공적개발원조(ODA), 산업 투자 등 다양한 형태의 재정 지원을 지속함.
- UAE를 비롯한 걸프 국가들은 요르단에서 발생하는 불안정의 역내 확산을 막고자 요르단에 2011년 아랍의 봄(민주화 혁명) 당시 50억 달러, 2018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 당시 25억 달러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함.)<sup>8)</sup>
- UAE는 2022년 대요르단 공여국 1위 국가로 전년대비 163.4% 증가한 약 3억 8천만 달러 규모의 ODA를 제공함.)<sup>9)</sup>
- UAE는 지난 10년간 요르단에 약 225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특히 자국의 에너지 전략

5) Invest Jordan 홈페이지(검색일: 2024. 9. 25).

6) Invest Jordan, "Mining Sector Profile", pp. 1-4; Nasdaq, "Top 10 Potash Countries by Production (Updated 2024)"(2024. 8. 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4. 9. 25).

7) Economic Modernization Vision 홈페이지, "High Value Industry - Mining Sector PDF Presenta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9. 25).

8) "Jordan's Economic Protests: Repackaging Reform"(2018. 6. 13), The Washington Institute for Near East Policy,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4. 9. 25).

9) OECD Data Explorer(검색일: 2024. 9. 25).

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자본을 투입함.<sup>10)</sup>

- 무바달라, 아부다비 개발기금 등 UAE 국부펀드의 주요 대요르단 투자 사례로는 타필라 풍력 발전소(약 9천만 달러), 베이누나 태양광 발전소(2억 4천만 달러), 셰이크 자이드 태양광 발전소(1억 5천만 달러) 프로젝트 등이 있음.<sup>11)</sup>
- 이번 UAE의 투자를 통해 요르단은 아카바 항구의 물류 효율성 개선을 통한 수출 역량 강화, 일자리 창출, UAE와의 경제적 유대 관계 강화 등의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됨.
  - 요르단은 철도 건설로 기존보다 광물 운송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철도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기술 노하우를 UAE로부터 얻을 수 있게 됨.
  - 특히 요르단 정부는 46.1%에 달하는 청년실업률을 개선하고자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는바 해당 프로젝트에 따른 물류, 광산, 철도 및 기타 관련 분야의 일자리 증가가 실업률 개선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sup>12)</sup>
  - 요르단과 UAE의 경제협력 강화는 지역 경제통합, 나아가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 (IMEC, India-Middle East-Europe economic corridor) 설립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동 회랑은 요르단을 통과하기 때문에, 요르단의 물류 역량 강화가 회랑 전체의 연결성 제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이지은 전문연구원

10) "UAE investments in Jordan put at \$22.5bln"(2023. 11. 15), Zawya,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4. 9. 25).

11) SWFI Data(검색일: 2024. 9. 25).

12) Worldbank, "Jordan - Overview",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9. 25).